

##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경(敬)을 위주로 하면 천리(天理)가 항상 보존되고 인욕(人欲)이 절로 끊어져 감응하기 전에는 보존된 것이 매우 고요하고 편안하며, 응하고 나서는 그 움직임이 이치를 따라 조화를 이루어 안으로는 마음이 누가 되지 않고 밖으로는 사물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넓어지고 몸은 편안해지며 호연하게 자득하여 지극한 즐거움이 있게 되니 어찌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의리의 본원으로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리의 잘못으로 드러나므로 변석하지 않을 수 없다.

상구(上九) 망명됨이 없는데 나아가면 재앙이 있어 이로울 것이 없다[无妄行有眚，无攸利(무망행유생, 무유리)].

내가 생각건대, 초구는 ‘망명됨이 없기 가면 길하다’고 하고 상구는 ‘망명됨이 없는데 나아가면 재앙이 있다’는 것은 초구는 무망의 시작이어서 시작부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도가 폐해져 회복할 나라도 망명되기 때문이고, 상구는 무망의 지극함이어서 이미 지극한데 나아가면 그 도가 변하여 또한 망명되게 되기 때문이다. 구사는 초(初)와 응하는 자리이고, 초효로부터 넷째 효에 이르면 무망이 이미, 이루어져 오히려 굳게 지키는 것이 옳으니, 하물며 이미 지극한 경우에 있어 서랴! 그러므로 그 망명됨이 없음을 굳게 지켜 움직여서는 안 된다.

### 대축(大畜)

‘단전(象傳)’, 대축은 강건하고 독실하며 빛나서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한다[剛健篤實輝光，日新其德(강건독실휘광)].

내가 생각건대, ‘강건하고 독실한’ 덕이 내부에 온축되고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건(乾)의 썩지않음에는 험 없는 정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간(艮)의 멈춤에는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으니 명덕(明德)을 밝혀 지선(至善)에 멈춘다는 것이다. 이미 그 덕을 밝혔다면 다시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하므로 그 밑에 ‘집에서 먹지하는 것이 멈춤에는 옮기지 않음’이라는 것이다. 그 밑에 ‘집에서 않으면

길하다’라고 하였다. 간이 건의 위에 있어 나아가되 하늘 자리[天位]에서 멈추는 상도 있다. 하늘 자리에 거하여 하늘이 주는 복을 먹으면서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하므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몸이 크게 쌓는 것은 몸이 크게 짓이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천하에 크게 쌓는 것이다.

상구(上九) 무엇이 하늘의 거리인가? 형통하다[何天之衢，亨(하천지구, 형)].

‘상전(象傳)’, 무엇이 하늘의 거리인가?는 도가 크게 실행된다는 것이다[‘何天之衢，道大行也(하천지구, 도대행야)].

상구가 간(艮)의 체(體)로서 축(畜)의 상황에 있으므로 멈추고 행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으로서 진위에 있고 축의 상황이 이미 극에 이르러, 도가 같고 덕이 합치하여 그 성질이 위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현명한 덕을 갖춘 이가 천자의 자리에 거하니 위태라기 뜻은 같이 하여 그 도가 크게 실행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집에서 먹지 않고’ ‘천하에 명덕에 밝히겠’이니 백성을 새롭게 함이 지선(至善)에 멈추는 것이다.

상구는 지위가 없는 자리인데 하늘의 자리에 거한다고 본 것은 강(剛)이 위로 올라 현자를 숭상하는 상(象)이 있기 때문이니 역(易)의 도는 때에 따라 의미를 취한다.

오정은 ‘하(何)’자를 ‘형틀을 썼다[何校]’의 ‘하’라고 생각하여 ‘시경’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으셨다[何天之休],’ ‘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다[何天之寵]’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인용한 것들이 분명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하늘의 아름다움’, ‘하늘의 은총’은 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만 ‘하늘의 거리’는 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이다. 간에 있으므로 마땅히 그쳐야 할듯한데 거침없이 통달하고 도가 크게 행해지므로 의심한 것이다. 혹자는 ‘하(何)’자가 쓸데없는 글자라 여겼으나 역시 잘못이다.
〈다음호에 계속〉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 이(頤)

‘단전(象傳)’, ‘기름을 분다’는 것은 그가 기름 대상을 분다는 것이다.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름 것을 분다는 것이다.

‘정전’에서는 ‘소양(所養)’을 다른 사람 기르는 것’으로 보고, ‘자양(自養)’을 ‘자신 기르는 것’으로 보았다. 주자는 기르는 도리와 자신을 기르는 방법으로 나누어 말하였다. 이는 기르는 것에 크고 작은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자신을 기르는 것이다.

나는 ‘단전’에서 ‘소(所)’와 ‘자(自)’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석씨자 소(所)와 능(能)을 대립적으로 보아 타인과 자신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택 문장에서 기르는 도의 위대함을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오로지물을 기르고 타인을 기르는 것만을 언급하였으니 뒷문장에서 반드시 타인과자기를 아울러 말해야 한다.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입과 몸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덕을 기르고 도를 기르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된다. 성탕(成湯)이 이른바 ‘나를 구실로 삼는다[台爲口實]’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덕을 기르고자 한 것과 같다. 이에 관해서서 정설(程)을 따라야만 하므로 주자도 뒷날 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설이 나은 듯하다’고 하였으니 의론(議論)이 이미 결정되었다. 다만 ‘정전’에는 덕을 기른다는 의미가 부족한 듯하므로 ‘본의’에서는 아울러 말했음을 보인다. 두 설을 합하여 ‘이귀구실’에 덕을 기른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면 뜻이 완비된다. 그러나 문왕의 폐사는 본래 스스로를 기르는 것을 위주로 말하고 있다. 이른바 ‘기름을 보고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폐에는 턱과 입의 상이 있고, 가운뎃치 톱 비었으므로 반드시 채운 뒤에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턱의 상을 보고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고 하였으니 두 가지 일이 아니다. 공자의 ‘단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인과 자신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는 건의 원 ·리 ·리 ·정을 네 가지 덕으로 나눈 것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그 뒤 의병부대를 많은 소단위의 의병부대로 편성하고, 충청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제천·죽산·장호원·여주·홍천 등지에서 유격전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강원도·충청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한 허준(許俊)·이경삼(李京三)·김만근(金萬근)·고석이(高石伊)·김군필(金君必)·이한창(李韓昌)·한기서(韓基弼)·한갑복(韓甲復)·윤기영(尹起榮)·이강년(李康季)·변학기(邊鶴基)·조인환(曹仁煥)의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강년의 부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일제는 3개 소대를 파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7년 8월 12일 약 200명으로 편성된 부대로 여주를 기습하여 경무부건소를 포위, 공격한 뒤 이곳 일본경찰과 가족들을 처단하고 무기를 접수하였다. 이때 많은 지방민이 의병부대로 지원해 오고 수가 수 천 명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여주·이천·양군 일대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8월 중순 이강년과 같이 충주공략의 작전계획을 세운 뒤 22일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23일 충주를 공격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장호원으로 후퇴하였다.

그 뒤 이천 북방과 산지동(山地洞)에서도 격전을 벌였다. 9월 17일 약 600명을 2개 부대로 나누어 홍천을 습격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9월 10일 약 200명의 의병이 재차 홍천을 기습하였다. 또한, 나머지 400명의 의병은 남천군야(銀川郡衙)를 기습 공격, 총기와 탄약을 접수하였다. 20일 춘천 남방의 정축(鼎足)

##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俊) 장군<17>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부군에서 약 300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고, 23일 횡성군 봉복사(鳳服寺)에서 약 350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격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 뒤 10월 26일 횡성 둔촌(屯村)에서, 11월 27일 홍천 서남 양덕원(陽德院)에서, 12월 8일 원주 동북 작곡(鶴谷)에서 계속 격전을 벌여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1908년 2월 29일 일본군과 접전하였으나 의병 20여명이 사살되고, 그는 사로잡혀 감옥으로 호송되었다. 그날 밤 부하 60여 명이 감람을 습격하여 탈출하다가 사살되었다. 민공호 의병장이 거느린 의병부대는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는 가장 세력이 큰 의병부대로 강원도·경기도·충청도·경상도로 전전하면서 모두 100여 회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구한말 의병장 민공호「충훈담기」를 지은 이러한 모습은 권준 장군의 덕장(德將)의 풍모와 정장(戰場)에서는 용장(勇將)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장(智將)으로서의 영결(英傑)한 풍도를 가늠케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제 때 애국지사(광복회)로서 중국에 망명하여 풍간노숙과 의열단, 중국군, 광복군, 임정부 요인(중경, 내무부 차장), 해방 후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건군(建軍)의 원훈(元勳)으로서 1948년(당기4281년) 초관 다음해인 1949년 재판으로 저서인 ‘전략(戰略)과 전술(戰術)’(233쪽)을 비롯하여, ‘소련야전참모업무령(蘇聯野戰參謀業務令)’(314쪽), ‘유격전강요(遊擊戰綱要)’(276쪽), ‘현대각국정당론(現代各國政黨論)’(252쪽), ‘민주정치개론(民主政治概論)’(64쪽) 등을 편찬하였다.

특히 제1훈련소 소장으로 근무할 때 의논문인 「고구려 명장 연개소문을 소개함」

##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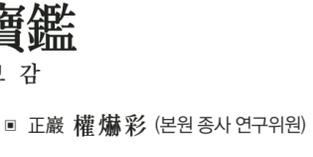
▣ 正巖 權 燦 彩 (본원 중사 연구위원)

### 明心寶鑑 解說 (立教篇)

● 武王이 曰(무왕이 왈) 何謂十盜(하위십도)니고 太公이 曰(태공이 왈) 時熱不收이 爲一盜(시수불수이 위일도)요 收積不了爲二盜(수적불료위이도)요 無事燃燈睡이 爲三盜(무사연등침수이 위삼도)요 慵懶不耕이 爲四盜(옹나불경이 위사도)요 不施功力이 爲五盜(불시공력이 위오도)요 專行巧善이 爲六盜(전행교해이 위육도)요 養女太多이 爲七盜(양녀태다이 위칠도)요 晝眠懶起이 爲八盜(주면나기이 위팔도)요 貪酒嗜慾이 爲九盜(탐주기욕이 위구도)요 横行嫉妬이 爲十盜(강행질투이 위십도)니라.

해설: 무왕이 묻기를, “무엇을 십도(十盜)라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익은 것을 제때에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이 첫째의 도둑(盜)이요, 거두고 쌓는 것을 다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도둑이요, 일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의 도둑이요, 게을러서 발을 갈지 않는 것이 넷째의 도둑이요,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도둑이요, 말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도둑이요, 낮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 여덟째의 도둑이요, 술을 좋아하고 환락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의 도둑이요, 심히 남을 시기하는 것이 열째의 도둑입니다.”고 하셨다.

참고: 시숙(時熟)⇒제 철에 익는 것, 時→때 시, 熟→익을 숙, 불료(不了)⇒끝내지 않는 것, 收→거둘 수, 積→쌓을 적, 了→마칠 료(요), 연등(燃燈)⇒등불을 켜는 것, 燃→불사를 연, 燈→등 등, 침수(寢睡)⇒잠자는 것, 寢→잠 침, 覺→깨을 수, 慵(慵懶)⇒게으른 것, 慵→게으를 용, 懶→게으를 라나, 盜→도둑 도, 耕→밭갈 경, 專行(專行)⇒전면적으로 행하는 것, 專→오로지 전, 晝→낮 주, 기욕(嗜慾)⇒즐기고 욕심내는 것, 晝→낮 주, 嗜→즐길 기, 慾→욕심낼 욕, 교해(巧害)⇒교활하고 해로운 일, 巧→교활할 교, 간사할 교, 주면(晝眠)⇒낮 잠, 晝→낮 주, 眠→잠잘 면, 나기(懶起)⇒일어나기를 게을리 하는 것, 질투(嫉妬)⇒미워하고 시기 하는 것, 嫉→미워할 질, 妬→생낼 질 투, 시기할 투, 탐주(貪酒)⇒술을 탐하는 것, 貪→탐할 탐.



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셨습니다.

- 武王이 曰(무왕이 왈) 願悉聞之(원실문지)하나다. 太公이 曰(태공이 왈) 養男不教訓(양남부교훈)이요 嬰孩不訓(영해불훈)이요 二課(위이착)이요 初迎新婦不嚴訓(초영신부불형엄훈)이요 三痴(위삼치)요 末語先笑(미어선소) 爲四失(위사실)이요 未語先笑(미어선소) 爲四失(위사실)이요 不養父母(부양부모)이 爲五逆(위오역)이요 夙夜赤身(야기적신)이 爲六不祥(위육불상)이요 好挽他弓(호만타궁)이 爲七奴(위칠노)요 愛騎他馬(애기타마)이 爲八賤(위팔천)이요 喫他酒勸他人(끼타주권타인)이 爲九愚(위구우)요 喫他飯命朋友(끼타반명부우)이 爲十賊(위십강)입니다. 武王이 曰(무왕이 왈)甚美哉哉(심미성재)라 튜셴也(시언야)이여

(양남부교훈)이 爲 錯(위일착)이요 嬰孩不訓(영해불훈)이 爲 二課(위이착)이요 初迎新婦不嚴訓(초영신부불형엄훈)이 爲 三痴(위삼치)요 末語先笑(미어선소) 爲四失(위사실)이요 不養父母(부양부모)이 爲五逆(위오역)이요 夙夜赤身(야기적신)이 爲六不祥(위육불상)이요 好挽他弓(호만타궁)이 爲七奴(위칠노)요 愛騎他馬(애기타마)이 爲八賤(위팔천)이요 喫他酒勸他人(끼타주권타인)이 爲九愚(위구우)요 喫他飯命朋友(끼타반명부우)이 爲十賊(위십강)입니다. 武王이 曰(무왕이 왈)甚美哉哉(심미성재)라 튜셴也(시언야)이여

해설: 무왕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태공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키우며 가르치지 않음이 첫째의 잘못이요, 어린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그릇됨이요, 처음 신부를 맞이하여 허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셋째의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웃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넷째의 과실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거스름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의 상스럽지 못함이요,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의 상스러움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의 천함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의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벗에게 주는 것이 열째의 뻔뻔함이 되는 것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아아! 심히 아름답고 성실하도다. 그 말씀이여.”라고 하셨다.

참고: 원실문지(願悉聞之)⇒듣기를 원한다. 願→원할 원, 悉→다 실, 양남(養男)⇒양자를 기르는 것, 養→기를 양, 錯→어긋날 착, 영해(嬰孩)⇒어린 아이, 踐뵈어 어린 아이를 말함, 嬰→어릴 영, 孩→어릴孩, 課→그림 윌, 二→맞을 영, 嚴→엄 할 엄, 訓→가르칠 훈, 失→잃을 실, 痴→어리석을 치, 笑→웃을 소, 미어선소(末語先笑)⇒말을 하기 전에 먼저 웃는 것, 적 신(赤身)⇒벌거벗은 몸, 불상(不祥)⇒상스럽지 못한 것, 祥→상서로울 상, 호만(好挽)⇒당기기를 좋아한다. 挽→당길 만, 他(他弓)⇒남의 활, 奴→종 노, 상스러울 노, 비천한 신분, 애기(愛騎)⇒말 타기를 좋아함, 騎→탈 말 기, 勸타주(喫他酒)⇒남의 술을 마시는 것,(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타인(勸他人)⇒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勸→권할 권, 誠→정성 성, 賤→천할 천, 飯→밥 반, 強→강할 강, 뻔뻔함도 표시함.

## 論語解說(25)

논 어 해 설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내가 성인을 만나 볼 수 없으니 군자다운 인물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만해도 괜찮겠다.”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사람도 내가 만나볼 수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자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만해도 괜찮겠다. 없는데도 있는체하고 비어있으면서도 가득 찬 체하고 작으면서도 커다란체하는 세상이니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도 어려울 것이다.”

【원문】
子曰 聖人吾不得而見之矣어든 得見君子者면 斯可矣러라 子曰 善人吾不得而見之矣어든 得見有恒者면 斯可矣러라 亡而爲有하여 虛而爲盈하며 約而爲泰니 難乎有恒矣니라.[자왈 서인을 오볼득이견지의어든 득견군자자면 사가의려라 자왈 서인을 오볼득이견지의어든 득견유형자면 사가의려라 망이위유하여 하이위형하며 약이위태니 난오유항의니라.]

【이해】
있는체하고 가득 찬 체하고 커다란 체하는 부류는 모두 허망하고 과장된 사람들이다. 한결 같으려면 우둔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지만 견실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점이 차라리 성[聖]에 가까울 터이므로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런대로 만족 하겠다는 공자의 생각이다.

### 제26장

공자[孔子]는 누시질을 하였지만 그물로는 고기를 잡지 않았고, 화살로 잡자고 있는 새를 잡지 않았다.

【원문】
子曰 釣而不網하시며 弋不射宿이러시디다.[자는 조이불망하시며 익불사숙이러시디다.]

【이해】
미끼를 무는 고기를 낚는 것은 그물을 펼쳐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 잡아 번식을 위협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고 잠들어 있어 근본적으로 위해[危害]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공격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잔학[殘虐]에 가깝다. 공자는 그렇게 불인정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 제2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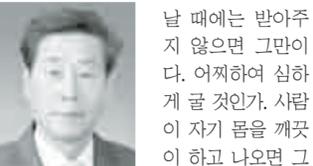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더러 이치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한일이 없다. 만이 들어서 그 좋은 점을 따르고 많이 보아서 지식이 높아지는 것은 저절로 깨우쳐 알고 있는 것에 다음가는 방법이다.

【원문】
子曰 蓋有不知而作之者나 我無是러라 多聞하여 擇其善者而從之하며 多見而識之하니 知之次也니라.[자왈 개유불지 이작지자나 아부시야러라 다문하여 택기 선자이종지하며 다견이식지하니 지지자야니라.]

【이해】
확고한 자아[自我] 나름의 신념이 있다 해도 독단과 편견은 정당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경계이다.

### 제28장

호향[互鄉]에 사는 더불어 말하기 어려운 어린이가 공자[孔子]를 만나러오자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그가 나올 때는 받아주고 그가 물러



것이지 그렇다고 그의 지나간 과거가 옳았다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원문】
互鄉은 難與言이러니 童子見커늘 門人惑되되 子曰 與其進也요 不與其退也니 唯何甚이리오 人이 潔以進이거든 與其潔也요 不保其往也니라.[호향은 난여언이러니 동자見커늘 문인혹되되 자왈 여기진야요 불여기퇴야니 유하심이리오 인이 결기이진이거든 여기결야요 불보기왕야니라.]

【이해】
대범[大凡] 관후[寬厚]한 공자[孔子]의공도가 돋보인다. 호향[互鄉]은 아마 공자가 외유할 때 경과한 지방일 것이나 어딘지 확실치 않고 전국책에는 일곱 살짜리 항학[項棄]이 공자를 동반이 궁해서 절절매게 만들어 스승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목에 등장하는 어린이가 그 아이였는지 다른 아이였는지 알 수가 없다.

### 제29장

공자가 말하였다. “인자함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자하려고만 한다면 인자함은 곧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원문】
子曰 仁乎遠哉아 我欲仁이면 斯仁이 至矣니라.[자 율인호원재아 아욕인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이해】
인자함은 그 덕이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가운데 마땅히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만 인자하게 먹으면 거기에 즉시 인자함의 싹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